

☐ 연구 논문

기독교적 전인치유의 의미와 방법

김태수(Th.D., 천안대학교 · 교수)

I. 여는 글

현대인들의 질병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심인성 질환이라고 한다. 마음(또는 정신)의 문제가 육체적 질환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마음의 문제는 영혼의 문제까지도 야기시킬 수 있다. 최근 필자는 부탁을 받고, 한 학생을 상담하게 되었다. P라는 자매는 고등학생이고 지금 환시(幻視) 현상과 귀신들림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다. 최근의 상황을 경청해 보았더니, 얼마 전 정들었던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고, 교회에서는 여학생이지만 중·고등부 학생회장으로 선출되었다. 교회에서 학생회의 대표가 된 후, 회장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심적인 부담감을 크게 느꼈다고 한다. 얼마 전 학교에서 수업을 받는 도중에 환시 현상을 체험하고 무엇이 자기를 따라온다고 운동장으로 뛰쳐나가 가르치던 선생님과 학우들을 놀라게 하는 일도 있었다고 한다. 학교측은 치료를 받고 완치되어 오라는 입장이며, 당분간 집에서 요양 중이다. 그런데 지난 주일 대예배(오전 11시) 시간에는 필자의 뒷줄에 그녀의 모친과 같이 예배를 드리던 P자매가 설교 도중에 몸을 비틀고 한숨을 푹푹 쉬면서 힘들어했다. 설교를 하던 목사님은 몇 번 눈으로 암시를 주었지만, 그와 같은 행동이 계속되자 전체 예배에 방해가 되므로 설

교 도중 모친으로 하여금 딸을 데리고 나가도록 하였다. 이 자매의 경우, 환시 현상이 있는 것을 보면, 정신분열증(schizophrenia)의 가능성이 있다. 또한, 예배 시간에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기쁨으로 수용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귀신들림의 현상도 내포되어 있다. 이렇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시달리고 괴롭힘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숙면을 취하지 못하고 육체적으로 쇠약해지게 되었다. 이런 경우, 이 자매를 치료하려면 육체적, 정신적 그리고 영적인 치유(healing)가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하자면, 전인치유(wholeness- healing)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녀가 기독교인이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으로 악한 귀신을 축출하고 정신적 건강을 회복해야 한다. 치유의 순서를 말하자면, 영적 치유(spiritual healing)가 우선시 되어야 하고, 다음으로 정신적 치유(mental healing)가 있어야 하며, 육체적 치유(physical healing)도 병행되어야 한다. 이 자매가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심인성 질환에 걸린 가능성을 충분히 내포하고 있다. 최근 IMF 이후 열악해진 경제적 상황으로 인하여 실업자가 속출하고 있으며, 대학을 졸업하는 대학생들의 60% 내외가 취업을 하지 못하고 방황해야 한다는 서글픈 보도들이 있다. 정치적으로는 대통령 재신임 문제와, 당리당락에만 눈이 멀어 서민들의 눈물을 외면하는 정치인들로 인하여 많은 국민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또 종교적으로는 사이버 종파들과 진리를 가장한 교리들이 진리를 호도시키는 이런 시기에 기독교적 전인치유는 그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이런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이 논문에서는 기독교적 전인치유에 관하여 논해 보고자 한다.

II 기독교적 전인치유의 의미와 방법

여기에서는 치유를 논하기 위해 우선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고찰로 시작하여, 전인치유의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기독교적 전인치유의 방법으로 육체적 방법, 정신적 방법과 영적 방법들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언급할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을 온전히 치유하기 위해서는, 육체적으로 나타난 증상과 질환

에만 치중하여 치료하는 것만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⁶³⁾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존재이며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외형적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과 영혼까지도 치유가 일어나야 진정한 의미의 치유가 일어났다고 할 수 있다.

1. 전인치유의 의미

전인치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치유의 대상인 인간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는 개인의 생각과 관점에 따라 다양한 표현으로 정의되어 왔다. 파스칼은 인간을 ‘생각하는 갈대(a thinking reed)’라고 정의하였다.¹⁾ 그런데 한편에서는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가 무엇이나에 따라 인간이해(인간관)에 대한 주장에도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²⁾

첫 번째 유형의 인간이해는 마르크스(Marx)계통의 인간관으로 일원론(monism)이다. 이 유형은 인간을 이해함에 있어서, 인간은 육체를 가진 존재 이상으로 보지 않는다. 즉 형이상학적 존재로 취급하지 않는 입장이다. 두 번째 유형의 인간 이해는 플라톤(Plato) 계통의 인간관으로 이원론(dualism)이다. 이 유형은 인간을 육체와 정신의 두 가지 구성요소로 융합되어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육체는 정신을 담고 있는 그릇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지만, 반면에 정신은 육체보다 중요하고 불멸의 특성을 가졌다고 주장한다. 이원론에서 육체는 죽으면 소멸하고 비본질적인 요소이지만, 영혼은 불멸하며 이데아(Idea)의 세계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본다. 세 번째 유형의 인간 이해는 인간은 육, 영 그리고 혼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삼원론(triplism)이다. 이 인간관은 상세히 분류하면 다시 3가지 견해로 분류할 수 있다.

1) 인간은 복합적 통일체이기 때문에 육체와 영혼을 구분할 수 없는 전인의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인간관은 육, 영 그리고 혼의 통합체로 인간을 이해한다.

2) 육체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구분하는데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모두 선택하는 하지만, 신성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3) 육과 영 그리고 혼으로 구분된다는 입장이다. 여기서 육체는 인간의 물질적 부분이고, 영(*pneuma*)은 이성적 생활의 원리이고, 혼(*psyche*)은 동물적 생활의 원리를 담당한다.

헬라적 사고방식 속에서 인간은 이분법적이고 분석적으로 이해하지만, 구약성경에서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다. 구약성경은 인간을 육체와 영혼이 결합된 하나의 통전적 실체라고 정의한다.³⁾ 즉, 인간은 육체, 정신 그리고 영혼의 각 영역이 서로 다른 부분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통일된 전체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계명대 의과대학 교수이며 신학교에서 강의를 병행하는 한 학자도 인간은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각각 분리될 수 없는 통합된 삼위일체로서 하나이며, 인간은 전인이라고 인간에 대한 개념을 규정하였다.⁴⁾ 육과 영과 혼의 3가지 개념에 대해 Paul Tournier에는 “육신이 무엇인지는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것이다. 나는 정신과 영혼을 명확히 구분하고자 한다. 정신은 의지, 지성, 감성, 자각과 같이 심리학의 영역에 속한다. 그렇지만 영혼은 육체도 정신도 아니다. 영혼은 하나님과 인간사이의 인격적 관계로 연결되어 있고, 그런 관계를 연결할 수 있도록 육신과 정신을 형성하는 것”⁵⁾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전인치유를 이해하려면 인간관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치유라는 용어에 대한 고찰도 병행되어야 하겠다. 치유라는 용어를 히브리어⁶⁾와 헬라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치유를 히브리어로 살펴보면 첫째, 아루카(**אָרֻכָּה**, *arukhah*)는 명사로써 ‘치료, 완쾌, 병이 차차 나아감’을 뜻하며 ‘온전함’의 뜻도 내포하고 있다(렘 8:22). 둘째, 마르페(**מַרְפֵּי**, *marpe*)는 ‘치료, 고침’(렘8:15, 대하 21:18)의 뜻으로 몸과 마음의 ‘양약’(잠 12:18)을 의미하였다. 셋째, 라파(**רָפָא**, *rapha*)는 동사로써 ‘상처를 고치다’(창 22:10), ‘본래의 상태로 회복시키다’(대하 7:15), ‘위로하다’(렘 8:11)의 뜻으로 사용된다. 넷째, 하람(**חָלַם**, *halam*)은 ‘회복케 하다’(사 36:16) ‘힘세게 하다’, ‘치료하다’의 뜻으로도 쓰인다. 또한 ‘치유’를 나타내는 헬라어도 다양하다. 첫째, 이아시스(*ιασις*)는 ‘치유, 고침’(행4:22)이라는 의미가 있으며, 마음의 약한 부분들에서 회복시키다(마 13:15)라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신약성경에서 육적 치유를 나타내는 말로 22회, 영적 치유를 나타내는 말로 5회에 걸쳐 사용된다.⁷⁾ 둘째, 데

라퓨오(*Θεραπευω*)는 복음서에 나오는 치유를 의미하는 동사들 가운데 가장 흔히 쓰이는 동사로써 4복음서에 무려 37회나 등장한다.⁸⁾ 헬라어에서 데라퓨오는 사도행전 17장 25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봉사’ 또는 신을 ‘예배’한다는 의미의 어근을 가지고 있다. 셋째, 소조(*σωζω*)는 복음서에서 치유를 위해 사용되는 단어들 가운데 건강과 치유에 관한 신약성경의 이해를 돕는데, 잠재적으로 매우 중요한 단어이다.⁹⁾ 본래 이 동사(*σωζω*)는 ‘안전하게 만들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고, 어떤 신적인 간섭 또는 인간적 개입에 의해 파생되는 자연의 위험이나 재해로부터의 구원이라는 의미로도 사용되었다. 이 동사는 일상 생활과 종교에서 폭넓게 사용되게 되었으며 복음서에도 반영되었다. 복음서에서 이 용어는 육체적 영적으로 위험, 질병과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을 의미하게 되었다.

치유의 개념에 대하여 Tournier는 “치유란 몸, 정신과 영혼의 합일로 이루어지며, 치유와 구원은 연합된 상태에 있다”¹⁰⁾고 언급하고 있다. 그에게서 우리는 전인치유와 일맥상통하는 치유의 개념을 발견할 수 있다. 필자는 전인치유란 영혼의 집인 육체와 사유를 담당하는 마음과 형이상학적 차원의 영역인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하나의 전인적이고 통진적(holistic)인 회복과정(또는 행위)이라고 생각한다.

2. 전인치유의 방법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인간의 전인적 치유는 육체적 치유에만 한정되어서는 안되고, 정신적 차원과 영적인 차원의 치유도 병행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여기에서는 이런 전인치유를 가능하게 하는 방법들으로써 육체적, 정신적 그리고 영적인 방법들을 몇 가지 소개해 보고자 한다.

1) 육체적 방법

(1) 안수를 통한 치유

안수는 치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환자의 몸에 손을 얹고 간절

히 기도하는 과정에서 질병의 치료가 일어나는 육체적 방법 가운데 하나이다. 안수하는 사람이 꼭 은사를 받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살아있는 인간의 손에는 생체로써 기본적인 치유능력이 있다. 살아있는 생체로써 인간의 손을 통하여 흐르는 에너지를 눈으로 목격할 수는 없다. 그러나 특수 촬영을 하면 우주의 에너지나 인간의 에너지가 손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전달되는 것을 영상자료로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은사를 받지 않은 사람도 어느 정도의 치유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물며, 치유의 능력을 은사로 받은 사람은 자신의 능력만으로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역할을 대행하기 때문에, 상상을 초월하며 의학적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불가사의한 일이 현실적으로 일어나게 할 수 있다.

하나의 예를 들자면, 필자는 하나님 안에서 치유의 은사를 받은 목사님의 안수를 통하여 암 덩어리가 환자의 몸 밖으로 빠져 나오는 것을 여러 차례 목격할 기회가 있었다. 의사들은 정교한 수술도구와 무균 처리된 환경에서 수술을 하면서, 대개 환자를 마취하고 예리한 칼과 의약품을 이용하여 치료를 한다. 의사에게 의학 지식과 수술도구가 있다면, 하나님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 성직자들에게는 성경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손이 있다. 안수는 도구인 인간의 손을 하나님께서 잠깐 사용하시는 것이다. 인간의 손에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이 임재하시면, 인간의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인간의 손에는 치유가 일어나는 동안 엄청난 에너지(energy)가 임하여 인간의 육체 내부로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 인간의 육체에 변화(단기간 또는 장기간)가 일어나며 심지어 암덩어리도 눈과 같이 녹아 내리게 할 수 있다. 이런 강력한 에너지는 인간의 과학적 수준에서도 만들어낼 수 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E=mc^2$)를 참고로 인간은 원자폭탄이라는 엄청난 에너지를 가진 무기를 개발하였다. 에너지는 가만히 머무르거나 고정적이지 않은 성질을 가지고 있다. 에너지의 양이 크면 클수록 비례하여 엄청난 일을 성취해 낼 수 있다. 인간의 수준에서도 과거 100년 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놀라운 것들을 오늘날에 와서는 성취해내는 시대가 이미 되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인간

만 못하겠는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치유 능력이 임재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육체적 현상들이 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치료의 능력이 임재하게 되면 온 몸에 전기가 흐르듯 전율이 일어나고, 손에 진동이나 떨림이 발생하게 된다. 가슴속에는 믿음으로 충만하게 되며, 심장의 박동수는 점점 빨라지게 된다. 이런 현상과 더불어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과 함께 동행하고 계심을 확신하게 되며, 이런 육체적 현상과 정신적 확신 그리고 영적인 믿음을 가지고 안수기도를 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병든 환자의 육체를 치유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방법으로 많은 환자들 특히 기독교인들 가운데 질병에 걸린 환자들 치유를 받고, 그들의 체험담을 간증하는 사례들은 많은 편이다. 이런 기적적인 체험이 있는 사람들이 살아있는 증인이며, 안수기도는 질병을 치유하는 육체적 방법들 가운데 하나의 방법이다.

예수께서 생존하셨던 당시에 그 분은 안수와 기도라는 방법을 통하여 많은 환자들을 치유하셨다. 예수께서 안수로 치유하신 7가지 경우들이 성경에는 등장한다.¹¹⁾ 다음에 나오는 처음의 4가지 경우는 예수께서 친히 주도권을 행사하셨다. 첫째, 고창병 걸린 사람: '예수께서 그를 데려다가 고치시니'(눅 14:4). 둘째, 말고의 귀: '예수께서 그의 귀를 만지시고 치료하시니'(눅 22:51). 셋째, 나자렛 지방에서의 치유: '예수께서 소수의 환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시니'(막 6:5). 넷째, 저녁 시간에 행하신 치유: '예수께서 그들 모두에게 안수하시고 치유하시니'(눅 4:40).

다음의 3가지 경우는 환자 자신들이 주도권을 행사하였다. 1) 혈루증 앓던 여인: '여인이 예수의 옷자락을 만지니 즉시 혈루증이 멈추니라'(눅 8:44). 2) 해변에서의 치유: '예수께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셨으므로 질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려고 몰려드니라'(막 3:10). 3) 게네사렛에서의 치유: '예수의 옷자락이라고도 만진 많은 자들이 나음을 얻으니라'(마 14:36). 복음서의 기록에 따르면, 안수는 예수께서 환자들을 치유하신 중요한 방법이었다. 안수만 했든 말씀을 동반한 안수였든, 그것은 치유의 중요한 한가지 방법이었음에는 틀림이 없다. 안수에 의한 치유가 신약시대에는 하

나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잘 알려져 있었다. 이것은 치유를 구하는 사람들이 예수께 요구한 다음의 본문에서 입증된다. 첫째, 딸의 소생을 위한 아이로: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구원을 얻어(sozo) 살게 하소서’(막 5:23). 둘째, 귀먹고 어눌한 자의 친구들: ‘그들이 예수께 나아와 안수하여 주기를 간구하였다’(막 7:32). 셋째, 벧새다 지방 맹인의 친구들: ‘그들이 소경 친구에게 안수하시기를 간구하였다’(막 8:22).

복음서의 기록에 따르면 예수께서 안수로 환자들을 치유하셨을 때, 환자의 신체 중 어느 부분을 만졌는지에 대해서는 보통 언급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자연스럽게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께서 치유가 필요한 부분을 만지셨을 것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다음의 3가지 경우에는 치유하는 부위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다. 맹인 바디매오의 경우에는, 그의 눈을 만지셨고(마 20:34), 병어리 귀신 들린 자의 경우는 귀와 혀를(막 7:33) 그리고 귀를 다친 말고의 경우에는 그의 귀를(눅 22:51) 치유하기 위하여 안수하셨다.

(2) 의사를 통한 치유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체를 치유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들(예: 성직자, 장로나 권사, 평신도, 의사나 간호사 등등)을 찾아보면 많은 편이다. 기독교인 의사들의 경우, 그들은 의과대학에서 배운 의학 지식만을 가지고 단순히 치료하는 것이 아니다. 특히, 현대 의학이 큰 도움을 주지 못하는 난치병들을 치료할 때 자신의 한계를 겸손하게 인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된다.

기원전 5세기 후반의 그리스 의사로서 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워졌던 Hippocrates는 의사로서의 사명감과 윤리적 지침을 상세하고 분명하게 제시해 주고 있다. “나는 의사의 신 Apollo, Hygeia, Panacea에 맹세하여, 나의 능력과 판단에 의하여 다음의 선서를 준수할 것을 모든 신과 여신 앞에서 맹세한다. Hippocrates선서: 이제 직업에 종사할 허락을 받으며 나의 생애를 인류 봉사에 바칠 것을 엄숙히 서약하노라. 나의 은사에 대하여 존경과 감사를 드리겠노라. 나의 양심과 위엄으로서 의술을 베풀겠노라. 나의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 나는 환자가 알려준 모든 내용의 비밀을 지키겠노라. 나의 직업의 고귀한 전통과 명예를 유지하겠노

라. 나는 동업자를 형제처럼 여기겠노라. 나는 인종, 종교, 국적, 정당정과 또는 사회적 지위여하를 초월하여 오직 환자에게 대한 나의 의무를 지키겠노라. 나는 인간의 생명을 수태된 때로부터 지식의 것으로 존중히 여기겠노라. 비록 위협을 당할지라도 나의 지식을 인도에 어긋나게 쓰지 않겠노라. 이상의 서약을 나의 자유 의사로 나의 명예를 받들어 하노라”¹²⁾고 하였다. 신약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께서는 많은 환자들을 치유하셨다. 예수께서 행하신 치유행위와 오늘날 의사들의 치료행위 사이에서 커다란 차이점이 있다. 먼저, 예수께서는 환자들을 치료하신 후, 한 번도 금전적으로 치료비를 요구하지 않으시고 순수한 의료인의 마음으로 사람들의 육체적 질병을 치유하셨다는 점이다. 둘째, 예수께서는 한 인간을 치료하실 때 단순히 그 환자의 육체만을 치료하는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그 환자의 정신적 문제와 영적인 문제까지 전인적으로 치유하셨다. 심지어는 예수께서는 사회적으로 격리되어야 하는 질병(예: 문둥병)에 걸려 가족과 소속된 공동체에서 추방당해야 했던 환자를 치료하신 후, 다시 원래의 공동체로 복귀할 수 있도록 사회적, 법적 조치까지 가르쳐 주셨다. 그 대표적 사례는 마가복음 1장 40-45절에 나오는 문둥병자(일명 한센병)의 경우이다. 이 사례를 통하여 우리는 전인치유의 다양한 측면들을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치유의 육체적 측면이다. 예수께서는 이 문둥병자를 육체적으로 치료하심으로써 그의 몸을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셨다.

둘째, 치유의 정신적 측면이다. 예수께서는 그 문둥병자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는 연민과 사랑의 마음으로 그를 치유하셨다. 이 환자는 문둥병 때문에 가족들과 이별하고 자신이 속해 있던 공동체에서 추방되어 격리된 삶을 살아야 했다. 그러므로 그의 정신이 심히 피폐(疲弊)해졌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질병이 치유됨으로써, 그 문둥병자는 정신적으로 다시 안정을 되찾고 새로운 차원의 치유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존재로 변했을 것이다.

셋째, 치유의 영적 측면이다. 이 문둥병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의 손에 의하여 치료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人格)을 접할 기회가 제공되었다. 또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치유의 능력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하는 현상들을 보고 영적인

세계를 체험할 수 있었을 것이다.

넷째, 치유의 사회적 측면이다. 예수께서는 이 문둥병자의 사회적, 법적 지위를 회복시켜 주셨다. 오늘날에도 대부분의 문둥병자들은 정상인들과 공간적으로 격리되어 살아간다(예: 소록도). 예수님 당시의 문둥병자들은 틀림없이 오늘날보다 훨씬 더 열악한 환경 속에서 격리된 채 살아야 했을 것이다. 문둥병자들은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우고 자신의 병을 타인들에게 알려야 했으며, 혼자 외롭게 살아야 했고, 주거 장소도 사람들이 사는 공동의 장소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살아야 했다(레 13:45-46). 다행히 문둥병이 낫게 되면 반드시 제사장에게 가서 자신의 건강해진 육체를 보여주고 신체검사를 받아야 했다(레 14:2-3). 이런 절차를 거쳐서 깨끗해진 것이 확인되면, 제사장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사실을 공포하고 그 사람을 다시 공동체에 합류하도록 허락을 하였다.

의사(간호사도 포함)는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환자들의 육체를 치료하는 직업의 사람이다. 오늘날 영리만을 목적으로 의사 개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서글픈 현실이지만, 아직도 소수의 양심적이고 헌신적인 기독교인 의사들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존재들이다. 그리고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던 ‘국경없는 의사회’ 소속의 의사들은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 아직도 이 땅에는 의료선교를 사명으로 알고, 자신을 희생하며 헌신하는 많은 기독교 의료인들이 있다. 그들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환자들을 육체적 방법으로 치료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소중한 사람들이다.

2) 정신적 방법

(1) 상담을 통한 치유

전인치유가 일어나도록 촉진하는 정신과 관련된 방법들 중에는, 문제를 가진 내담자와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열어주는 상담자간의 상담이 있다. 우선 상담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B. B. Moore와 W. V. Bingham은 상담을 면접과 같은 의미로 생각하여 ‘목적을 가진 대화’라고 주장했으며, A. Garrette은 ‘전문적 대화’라고 정의하였다.¹³⁾ 이장호는 상담이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이 전문적 훈련을 받은 사람과의 대면관계에서 생활과제의 해결과 사고, 행동 및 감정측면의 인간적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학습과정¹⁴⁾이라고 개념규정을 하고 있다. 그런데 학자에 따라 크게 구분해 보면, 상담을 심리요법과 동일한 성격으로 보거나 심리요법의 한 방법으로 보는 협의적 관점과, 상담을 포괄적 생활지도에 접근시키는 광의적 관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상담과는 구분하여 기독교상담의 정의를 살펴보면, 복음적이며 기독교상담학과로 분류되는 Jay E. Adams는 상담이란 ‘성령의 중생케 하시는 사역과 성화시키는 사역의 조화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Wallace Carr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도록 돕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총신대학교의 정정숙은 상담이란 ‘상담자와 피상담자의 대면관계에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비성경적 사고, 감정, 행동을 성경적인 것으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재교육하는 것¹⁵⁾’이라고 의견을 피력한다.

다음의 예(요 4:3-42)는 성경에 등장하는 상담을 통해 치유가 일어났던 하나의 좋은 사례이다. 예수께서 유대지방을 떠나 다시 갈릴리(Galilee)로 행선지를 정하고 길을 떠나셨다. 그런데 갈릴리 지역에 가려면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통과해야 했다. 예수께서는 사마리아에 도착하여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러서 우물가에 앉아 계셨다. 시간은 약 12시로 정오였는데, 그 시간에 한 여인이 물을 길러 나왔다, 예수께서는 유대인 남자들은 상종도 하지 않았던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상담)를 시작하셨다.

본문을 통하여 예수께서 사용하신 상담의 방법은 주로 공감과 경청이었다. 예수께서는 여인이 아무도 오지 않는 대낮에 홀로 우물물을 길러 나온 것으로 보시고, 평범하게 살아가는 삶의 여인이 아니라는 것을 아셨다. 예상대로 이 여인은 남편을 5명이나 두었던 여인이었다. 다섯명의 남편과 살아보았지만 만족할 줄 몰랐던 이 여인이 정신적 공허감이 얼마나 심각했겠는지 예수께서는 공감하셨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여인의 삶에 대하여 따뜻한 관심과 사랑으로 경청하시고, 그녀에게 올바른 삶의 방향을 인도해 주셨다.

여기서 상담의 기법들 가운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경청의

다양한 유형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¹⁶⁾

첫째는 집중적 경청(**concentration on listening**)으로 이것은 듣는 기술 즉, 경청의 기술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상대방에게 집중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기법이다.

둘째는 용납적 경청(**acceptance in listening**)인데 상담자는 내담자가 어떤 말을 할지라도 일단 그의 말을 수용하고 용납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는 반영적 경청(**reflective listening**)으로 내담자가 표현하는 메시지의 요점을 거울로 비추어주듯이 반영하는 기법이다. 반영은 감정, 태도와 내용의 영역의 3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감정의 반영이란 주로 내담자의 감정에 초점을 맞추어 그때그때 반영해 주는 것이다. 태도의 반영은 내담자의 언어표현뿐만 아니라, 비언어적 표현을 읽고 적절하게 반영하는 것이다. 내용의 반영은 내담자의 메시지 내용을 요약해서 상담자의 말로 간략하게 표현하는 것이다.

넷째는 공감적 경청(**empathic listening**)으로 내담자의 말을 들을 때, 그의 생각과 감정과 경험의 세계에 몰입하여 그의 입장에 서서(易地思之) 깊은 공감을 하고, 그것을 내담자에게 다시 전달해 주는 경청기법이다.

다섯째는 지원적 경청(**supportive listening**)으로 내담자의 말을 들을 때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내담자가 희망과 용기와 삶의 의욕을 상실하지 않도록 위로, 지원해 주는 경청기법이다.

여섯째는 방향제시적 경청(**directive listening**)으로 내담자로 하여금 어떤 주제에 대하여 분명하게 생각하고 표현하도록 유도하고 자극하는 창조적 경청기법이다.

일곱째는 직면과 도전적 경청(**confrontation and challenge in listening**)으로 내담자의 왜곡된 사고, 비합리적 생각, 패배적 사고들을 교정시켜주기 위하여 직면, 도전이라는 기술을 사용하는 경청의 기법이다.

여덟째는 비언어 메시지의 경청(**listening for non-verbal message**)으로 이것은 내담자의 언어적 표현은 물론, 비언어적 표현을 지혜롭게 듣고 파악하는 기술의 경청의 기법이다.

위에서 언급한 경청의 유형들 중에서 예수께서 취하신 기법을

살펴본다면, 여인의 기구한 삶에 공감하시는 공감적 경청(empathic listening)과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추구하고 결단할 수 있도록 방향제시적 경청(directive listening)의 방법을 사용하셨음을 알 수 있다. 예수께서는 제 1단계로 일상적이고 기본적인 대화(“물을 좀 달라”)로 자연스럽게 상담을 시작하시어, 제 2단계로 여인이 심각하게 안고 있는 정신적 문제(다섯 번이나 결혼함)를 심층적으로 다루셨다. 그리고 제 3단계로 여인의 새로운 삶에 원동력이 되는 영적인 문제(하나님을 예배하는 일)까지 상담해 주셨다.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하고 상담을 통하여 증인된 삶(요 4:28-29)으로 생활이 변화되었다. 그리고 이 여인의 경우는 새로운 정신적 가치관과 영적 소망 가운데 과거를 단절하고 새로운 생활을 결단함으로써, 전인적 치유가 일어났던 하나의 좋은 사례이다.

(2) 찬양을 통한 치유

최근에는 육체를 치료하는 방법들이 다양하게 개발되는 과정에 있다. 그 가운데 하나는 음악치료이다. 음악치료는 문자적 표현대로 적절하고 효과적인 음악을 통하여 치유가 일어나도록 촉진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음악이라는 장르는 인간에게 치유의 능력을 일으키는 분야이기도 하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에,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다. 또한 찬양을 부르는 당사자는 음악을 통하여 정서적 변화를 체험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치유를 체험할 수 있다.

치유를 체험할 수 있는 찬양의 정의를 내려본다면, 찬양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경배의 행위이다. 찬양은 항상 능동적이고 정적이며 또한 표현력이 있으며 개방적인 특성이 있다. 찬양이 언급되는 곳에는 항상 움직임과 행동, 소리 그리고 노래가 수반되어 나타난다.¹⁷⁾ 그런데, 찬양을 받으시는 대상은 누구인가? 그 대상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 치유와 관련하여 출애굽기 15장 26절은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와의 말을 청중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고 증언하고 있다. 출애굽기 15:26의

중요한 히브리어 표현인 여호와 라파(רפא, *rapha*)라는 용어는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이다.

사무엘상 16장 14-23절에는 찬양을 통하여 치유가 일어났던 사례가 나와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된 사울은 인간적으로는 최고 권력의 자리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신이 떠나자 악신으로부터 괴로움 받게 되었다.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신하들이 사울 왕에게 악기를 잘 다루는 사람을 통하여 치료받아 보기를 간곡히 청하였다. 이런 연유로 사울 왕에게 추천된 소년이 바로 다윗이었고, 그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소년이었다. 양(羊)이나 치던 비천한 소년 다윗이 국가의 통치자인 사울 왕 앞에 호출을 받고 그의 앞에서 하게 되었으니,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왕의 치유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겠는가? 소년 다윗이 수금을 취하고 사울 왕을 위하여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악기를 연주했을 때, 사울 왕에게서 악신이 떠나고 사울 왕은 치유함을 받게 되었다.

찬양은 음악이라는 형태의 수단으로 표현되어 하나님께 드려지는 노래이며 몸의 언어이다. 이것은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음악의 수준을 넘어선다. 찬양의 가사를 통하여 절대자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며 허물을 고백하는 총체적 예배행위인 것이다. 찬양의 가사는 세련된 기도의 내용이요, 엄밀하게 정선된 언어들은 찬양하는 사람의 정신과 영혼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그것은 육체적 치유효과로 나타나게 된다. 또한 찬양은 유행가와 같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다. 그 가사를 통하여 절대자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런 영적인 대화 속에서 유한한 인간은 무한하신 하나님을 영적 감각으로 느끼고 체험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한 인간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다는 것은, 단순히 악보의 가사를 음악적 이론과 기교에 따라 부른다는 의미의 차원을 초월하는 행위이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당사자는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그 분의 음성을 영감을 통하여 들을 수 있다. 이런 신앙적 행위인 찬양을 통하여 인간은 정서적으로 찬양의 가사에 깊은 감동을 받아 눈물을 흘리거나 기쁨으로 가슴이 벅차오르는 경험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찬양을 통한 긍정적인 정서적 체험은 한 인간의 인격에 깊은 각성과 변화를 줄 수 있다. 또한 신체적으로도 몸

에 유익한 호르몬(hormone)들이 분비되고, 신경계는 안정되며 정서적 평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촉진된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절대자이신 하나님과의 영적 상호작용(interaction)을 통하여 삶의 자세와 태도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방향으로 전환될 수 있다. 이렇게 찬양은 하나님과의 정서적, 신앙적 체험들을 가능케 함으로 말미암아 한 인간의 육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전인적 치유가 일어나도록 촉진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

3) 영적 방법

기독교적 전인치유의 세 번째 방법은 하나님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이루어지는 영적 방법이다. 여기서의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전(세례와 성만찬)을 중심으로 언급하고자 한다. 영적인 방법이 치유의 능력을 일으키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은 언어라는 형태의 말씀이다. 모든 인간들은 언어를 통하여 의사소통을 하며 살아간다. 이와 관련하여 하이텍거는 말하기를 “언어는 존재(Sein)의 집이며, 인간은 언어의 테두리 안에서 살아간다”고 언급하였다.¹⁸⁾

(1)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치유

국왕이나 대통령의 말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도 하며 죽이기도 한다. 인간의 역사를 통하여 살펴보면, 독재자 히틀러의 말 한마디는 약 600만명의 유대인들을 죽이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였다. 인간 수준의 말도 위력이 대단하거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 인간의 육체와 정신과 영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치유(출 15:25-26, 시 107:20)를 일으키며, 거듭나게(약 1:18) 하며, 자유를 향유(요 8:32)하게 만드는 다양한 기능들이 있다. 또한 진리의 말씀과 신자의 생활관계는 기쁨의 원천(시 119:47)이 되며, 삶의 이정표(시 119:133)가 될 수 있고, 자기 성찰(시 119:59)을 통하여 치유가 일어나도록 상호작용 한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사용하여 치유를 일으키셨다. 예수께서 말씀(word)으로 처방하여 치유하신 사례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¹⁹⁾ 귀신들린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축출하실 때, 예수께서는 귀신에게 떠나라는 명령의 말씀을 하셨다. 예수께서는 귀신들린 자에게 결코(손을 없는) 안수를 하지 않았다. 예수께서 사용하

셨던 명령어는 3가지 경우로 나타난다. 첫째, 회당의 귀신들린 사람의 경우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막 1:25)고 말씀하셨다. 둘째, 거라사의 귀신들린 사람의 경우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막 5:8)고 명령하셨다. 셋째, 간질에 걸린 소년의 경우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막 9:25)고 말씀하셨다.

위에 언급한 것처럼 예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실 때 대부분 명령으로 축출하셨지만, 마태복음 8장 16절(“사람들이 귀신들린 자들을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집단 치유의 일부분으로써 행하여진 귀신 축출을 통하여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예수께서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마귀의 증언을 허락치 아니하고, 회당의 귀신들린 자에게 행하신 것처럼 귀신에게 잠잠하라고 명령하셨다는 점이다. 누가복음 4장 41절에는 이것에 대한 언급이 명확하게 나타나 있는 데 성경은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저희의 말함을 허락치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줄 앎이러라’고 증거하고 있다.

(2) 성례전(sacraments)을 통한 치유

전인치유를 위한 영적인 방법의 다른 하나는 성례전이다. John Calvin은 “성례란 하나의 외적인 징표인데, 주님께서는 그것으로써 우리 마음에 친절을 약속하는 언약을 인치셔서 우리 신앙이 연역하게 될 때 보호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향한 신앙을 주님과 천사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증거한다”고 주장하면서, 성례전에 있어서 인간보다는 하나님의 주권적 행위에 더 강조점을 두었다.²⁰ 인간은 거룩한 예식인 세례와 성만찬을 통하여 초월자이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그런 성스러운 예식을 통하여 정서적 변화와 영적 변화를 받고 전인적 치유를 체험할 수 있다.

성례전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로마 카톨릭에서는 보통 성례를 성사라는 용어로 사용했는데, 일곱 가지의 유형이 있다. 7성사란 견진성사(confirmation), 혼배성사(matrimony), 중부성사(extreme unction), 고해성사(penance), 신품성사(ordination), 과 영세성

사(baptism) 그리고 성체성사(eucharist)이다. 이 가운데 기독교의 전통 속에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2가지 대표적인 성례는 세례와 성만찬이다.

첫째, 세례(baptism)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 28:19~20을 통하여 제정해 놓으셨다. 그 내용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성부와 성자 그리고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명령이었다. John Calvin이 주장하는 세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기억하지도 아니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는 율법적 방편이다.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과 죽음에 연합되어서, 그의 모든 은혜에 참여하는 존재가 된다는 확실한 증거를 제공해 주는 것으로, 이것은 은혜의 표상적(表象的)이고 상징적(象徴的)인 개념이다.²¹⁾

필자는 고등학교 1학년(17세)일 때, 세례를 침례(물 속에 몸을 완전히 잠기게 하는 의식)로 받았다. 사전(事前)에 세례에 대한 교육을 충분히 받고, 세례의식에 참석하였으므로, 지금까지도 그 때의 감격이 생생하다. 약 6개월에서 1년 동안 세례를 준비하기 위한 성경공부와 기도를 통하여 세례를 받게 되었고, 세례받은 날은 영적인 생일이므로 잊어버리지 말라는 교육까지 받았다. 필자가 세례를 받은 날은 1976년 8월 25일로 그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기도하고 성경말씀을 암송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세례라는 거룩한 종교의식을 통하여 인간은 정서적, 영적 변화를 받을 수 있으며, 이런 과정을 통하여 치유를 체험할 수 있다.

둘째, 성만찬(Lord's Supper or Eucharist)은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면서 분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다(마 26:26~28). 성만찬에서 떡은 그리스도의 몸(눅 22:19)을 상징하는 것이고,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피(눅 22:20)를 나타내는 중요한 수단이며 상징이다. 천주교에서는 성만찬의 떡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포도주는 그 분의 피라고 믿는 화체설을 강조한다. 그러므로 성만찬에서 사용되는 떡과 포도주는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피인 것이다. 반면에, 개신교에서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요, 포도주도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라는 성경의 말씀에 따라 행하는

종교의식이라는 기념설에 기반을 두고 있다. 강조점이 약간은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거룩한 종교의식이요, 이런 의식을 통하여 인간이 성화되고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성례전을 통하여 한 인간이 느끼는 감정들은 시상하부(hypothalamus)나 변연계(limbic system)에 긍정적 영향을 주어, 두뇌에서 발생하는 긍정적 변화는 신체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하고, 몸 전체에 긍정적 영향을 줌으로써 치유가 일어날 수 있게 만든다. 이런 관점에서 성례전과 치유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고찰해 보겠다.²²⁾

첫째, 성례전을 통한 구속의 확신으로 인하여 죄로부터 해방감을 맛보게 되면 불안, 초조, 긴장이나 억압과 같은 삶의 근본적 압박감이 없어지게 된다. 이때 시상하부와 대뇌 변연계에서는 관절과 위(stomach)에 긍정적 메시지를 보내고, 시상하부에서는 뇌하수체에 명령을 내려 좋은 호르몬을 분비케 함으로 치유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이다.

둘째, 성례전을 통한 현재의 구원에 대한 감격은 삶의 유쾌함과 생명력을 제공해 준다. 이런 감정은 자율신경을 통하여 호르몬의 균형을 정상적으로 잡아주며, 그 결과 부교감신경의 활동으로 몸이 알칼리성이 되어 치유에 영향을 준다.

셋째, 성례전을 통하여 공동체 체험을 하게 되어, 사랑 받는다는 확신을 갖게 된다. 이런 확신을 체험하게 되면, 중추신경계 가운데 호흡 중추 신경이 안정적으로 운동하며 대뇌피질이나 시상하부에 영향을 주어 폐 조직의 자율신경을 안전케 하고 기관지 천식을 안정시키게 된다.

넷째, 성례전을 통하여 초월적 체험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임재와 신비를 상징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것이다. 마틴 존스는 초월적 체험이 우리의 두뇌와 중추신경계를 통하여 몸에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였다. 이런 초월적 체험은 시상하부나 변연계를 자극하여 신체에 긍정적 영향을 주게 된다.

다섯째, 성례전을 통하여 분열된 인격이 통합될 수 있다. 분열된 인격은 생의 의미와 목적을 상실한 인격으로 그릇된 습관이 노예가 되기 쉽고, 정신적 질환에 걸리기도 쉽다. 이것은 자신의 감정을 통합하고 규합하는 시상하부나 중추 변연계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

여섯째, 성례전을 통하여 감동적인 사건을 체험할 수 있다. 이런 감동적인 사건은 참여자에게 정화와 치료 그리고 학습을 체험하게 한다. 이러한 긍정적 체험들을 경험한다면, 자율신경계나 시상하부 그리고 변연계에는 커다란 자극과 안정감을 제공함으로써 치유 효과가 일어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성례전을 통하여 변화된 감정은 치유에 영향을 준다. 성례전을 통한 감정의 변화를 체험하게 되면 부정적 감정의 상태를 벗어나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삶의 자세로 변화될 수 있다. 이런 변화된 감정은 대뇌피질의 경로를 거쳐 부교감 신경이 우세하게 되고, 체액이 알칼리화 되어 장(腸) 속의 미생물 상태를 좋게 하여 치유에 긍정적 효과를 주게 된다.

인간의 육체는 유기체여서 서로 긴밀한 연관성이 있고, 한 부분의 아픔과 질병은 그것으로 국한되지 않는다. 성례전은 거룩한 종교의식이므로 이런 의식의 과정들을 통하여 인간은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고, 육체와 정신 그리고 영혼이 소생하며 새로운 존재로 치유받을 수 있다.

Ⅲ. 달는 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인간을 이분법과 삼분법적으로 분석하고 이해할 수 있겠지만, 구약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은 육체와 정신과 영혼이 분리될 수 없는 생명을 가진 몸 즉, 통전적이고 전인적인 하나의 생명체이다. 필자가 미국에 유학 중, 어느 주일날 대예배 설교에서 인체와 연관시켜 교회의 유기적 관계를 설교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리하여 직분이 장로이면서 사회적으로도 명망이 높은 의사에게, 인체가 의학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물어보았다. 대답인즉, 인체는 대부분 뼈와 살(근육)과 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뼈와 살과 피는 구성물질이나 역할이 각각 다르다. 그 역할과 성분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들을 분리한다면 과연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결과는 생명의 종말 즉, 죽음이라는 것이다. 인체의 뼈와 살과 피는 성분과 역할이 다르지만, 이 3가지의 구성성

분들이 삼위일체를 이루면서 인간의 생명을 유지시키고 있다.

인간이 질병에 걸릴 때, 객관적으로 보면 육체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현대인들의 대부분의 질병은 심인성 질환이라는 것을 통계자료들이 입증해 주고 있다. 또한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들의 숫자가 증가추세에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귀신에 들리고 악령에 의하여 시달림을 받고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하기도 한다. 기능성 질병들은 현대의학의 도움으로 치료가 되겠지만, 기질성 질병들과 영적인 질병들은 의사가 치료하기 힘들다. 그러므로 온전한 치료가 이루어지려면 육체와 정신과 영혼을 통전적이고 전인적으로 치유해야 한다. 오늘날 서양의학이 한계에 봉착함으로써, 치료가 다양화되고 있다. 예를 들자면, 동양의 침술을 통한 치료, 명상이나 음악 그리고 미술을 통한 치료기법들이 개발되고 있다. 이런 점으로 볼 때, 인간의 몸은 단순한 육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것처럼 생기를 가진 존재이다. 그러므로 치료의 방법도 약물이나 수술과 같은 방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설계된 존재이므로, 온전한 치유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육체적, 정신적 그리고 영적인 방법들을 통한 전인적 치유가 시도되고 일어나야 한다. 특별히 기독교인들에게 적절한 다양한 방법의 전인적 치유요법들이 개발되고 지속적으로 연구되어야 하겠다.

* 후 주 *

1) 의학에서는 치유(healing)보다는 치료(treatment)라는 용어를 더 잘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이 논문에서는 치유라는 용어가 치료보다는 더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할 것이다. 왜냐하면 기독교적 전인치유는 단순히 육체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과 영혼까지도 포함하는 치료이기 때문이다.

1) B. Pascal, *Pensees* tr. by A. J. Krailsheimer (New York: Penguin Books, 1966), 95.

2) 박행렬, 『전인 치유사역』(서울: 도서출판 나임, 1994), 18-23.

3) 박운수, 『치유상담의 이론과 실제』(서울: 경성기획, 1994), 130.

4) 전재규, 『통전적 치유와 건강』(대구: 보문출판사, 2000), 18.

5) Paul Tournier, *The Healing of Persons*, 황찬규 역, 『인간 치유의 심리학』(서울: 보이시스, 1988), 89.

- 6) 조두만, 『히·헬라이어 사전』 (서울: 성지사, 1987).
- 7) 존 워버, 『능력 치유』 이재범 역 (서울: 나단, 1994), 82.
- 8) John Wilkinson, *The Bible and Healing* (Edinburgh: Handsel, 1998), 77-78.
- 9) Wilkinson, 80.
- 10) Paul Tournier, 『성서의학』 마경일 역 (서울: 전망사, 1978), 219.
- 11) Wilkinson, 107-111.
- 12) 이우주 편저, 『표준 의학사전』 (서울: 아카데미서적, 1993), 1119.
- 13) 박윤수, 『치유상담의 이론과 실제』 (서울: 경성기획, 1994), 27.
- 14) 이장호, 『상담심리학 입문』 (서울: 박문사, 1986), 3.
- 15) 정정숙, 『기독교상담학』 (서울: 베다니, 1994), 29.
- 16) 이기춘 외 5인, 『목회임상교육』 (서울: 감리교목회상담센터출판부, 1998), 71-89.
- 17) 이회경, “찬양이 치유기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아세아연합신학대학 석사학위 논문, 1997), 61.
- 18) Martin Heidegger, *Über Den Humanismus* (Frankfurt: Vittorio Klostermann, 1949), 5.
- 19) Wilkinson, 105-107.
- 20) Otto Weber, 『칼빈의 교회관』 김영재 역 (서울: 풍만, 1985), 126.
- 21) 니이브, 『기독교교리사』 서남동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2), 427.
- 22) 신영춘, “성례전이 치유에 미치는 영향” (아세아연합신학대학 석사학위논문, 1993), 92-100.